"어대명이냐" vs "혁신이냐"

민주 당권 경쟁 호남 민심 주목

'이재명 대 97그룹' 구도
대세론에 순응 할지 미지수
단일대오 형성도 관심사

우상호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보복 수사 대책과 전당대회 준비 등에 관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구도가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의원이 이르면 5일 당권 도전 선언에 나서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어대명'의 흐름이 새로운 민주당을 상징하는 혁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폭발적 동력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호남 민심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흐름과 반응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전반적인 호남 민심은 민주당 전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어대명' 흐름에 흔쾌히 동의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그 배경에는 4기 민주정부 창출이라는 대의가 우선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호남 민심의 명쾌한 지지가 결집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대선 패배에도 불구, 보궐선거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갈리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여론의 창구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당권도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이 의원 측에서는 '대세론'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 가운데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도 결국 이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비, 호남 지지 조직 구성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역동적인 호남 민심이 '이재명 대세론'에 순응할 지는 미지수다. 호남 민심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따라 민주당의 혁신에 방점이 찍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대세론에 안주한다면 과감한 혁신안을 제시하는 당권 주자에 지지를 몰아줄 가능성도 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을 보였듯이 '혁신 없는 전대'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당권을 거머쥐더라도 호남 민심의 적극적 지지를 담보하지 않고서는 '상처뿐인 영광'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호남 민심은 민주당의 혁신 흐름과 함께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혁신 경쟁이 민주당 당권의 향배와 전대 흥행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친문(친 문재인) 진영 등에 휘둘리면서 분열 양상을 보였던 호남 민심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호남 정치권이 점차 존재감을 잃으면서 민주당의 심장이었던 호남 민심도 과거와 같은 강력한 결집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민주당 전대에서 호남 최고위원 주자로 나섰던 전북의 한병도 의원과 전남의 서삼석 의원이 줄줄이 탈락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반면 지금은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은 당시 여성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대에서 출마하는 호남 최고위원 주자는 민주당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혁신안을 토대로 호남 민심 결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후, 호남 민심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대가 과감한 혁신 경쟁 구도를 보이지 않고 특정 후보 중심의 대세론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호남 민심의 지지가 아닌 외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기자 노트

이해 못할 강 시장의 첫 인사

박 진 표
정치부 부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정치도 유능하고 행정도 유능한 광주시장이 되겠다.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한없이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시청 공직사회 내부에선 기대보다는 강 시장이 바로 전날 김광진(41) 문화경제부시장 임명을 단행한 것을 놓고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강 시장은 "국회 정무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분"이라고 김 신임 부시장을 높게 평가했지만, 시청 내부에선 "광주의 경제·문화를 책임져야 할 중요직에 기획재정부 출신을 빼내고, 선거대책위원장과 인수위원을 지낸 선거캠프 핵심 정치인을 배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들이 나왔다.

강점일 수 있는 4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마저도 입살에 올랐다. 36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의 사례를 들어 젊은 나이를 트집 잡아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으로 부각됐다.

실제 순천에서 초·중·고와 대학·대학원까지 수료하고 제19대 국회의원(비례)을 지낸 김 부시장은 광주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다 종합행정은커녕 문화나 경제분야 활동경험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비례대표로 뽑힌 김 부시장은 국회 활동도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화·경제 분야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시청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순천 토박이인 김 부시장이 광주시의 '문화·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는 게 적절하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50대 초·중반으로 30년 이상 여러 명의 광주시장을 경험하고 행정적 호흡을 맞춰온 시청 간부들 사이에서도 "전문성이 없는 40대 초반 부시장과 함께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강 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 기재부 보강을 위해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을 재정경제자문역으로 영입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종합행정 구조상 비상근직인 안 전 차관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청의 한 간부는 "직원 대부분은 인사권자의 결정인 만큼 겉으로 수용하는 듯 하겠지만, 속으로는 (이번 인사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국비확보를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이 가득한 지역 경제 행정은 물론 문화도시 광주의 문화정책을 제대로 이끌어갈 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가 국비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할 관련 공무원의 걱정은 더욱 크다.

특히 정권교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기재부 출신 고위직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나마 한 명뿐이던 기재부 출신 문화경제부시장마저 정치인 출신으로 바뀐 점이 뼈아프다는 게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반면 전남도와 서울, 경기 등 전국 대부분 시·도에선 기재부 출신 고위 간부를 영입해 국비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의 한 직원은 "정권이 바뀌면서 광주에 필요한 국비 등을 설명하려해도 기재부 5급 사무관조차 만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나마 어려울 땐 (기재부 출신 부시장이) 연결고리라도 해결해 주셨는데, 이젠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이 같은 공직사회의 우려와 고민이 곧 지역의 여론 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저, 전국 최저'인 37.7%의 투표율은 광주시민이 준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라는 사실도 명심했으면 한다.

/ lucky@kwangju.co.kr

나토 다녀온 尹대통령 "국제정치 현실 더욱 실감"

동포간담회 '우리의 소원' 합창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이나 참모들의 보고를 통해 국제 문제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보니 국제정치의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런 소회를 내놨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3일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양자회담 또는 정상회의에서 만난 30명에 가까운 각국 정상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며 자국 ㎜방문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방한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각 해당 분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라고도 말했다.

동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상당수 국가가 원자력발전, 녹색기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스페인 경제인과의 오찬에서도 같은 요청이 이어졌다.

스페인 기업인들은 인프라(기반시설)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협력을 통해 활발한 제3국 진출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와 환경산업,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한국 내 투자 확대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찬에 참석한 한 스페인 기업인은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마드리드에 온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대통령만이 스페인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한국에 진출해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스페인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나토 일정의 뒷얘기도 전했다. 지난달 29일 동포 간담회에서는 1999년 창단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우리 가곡을 불렀다. 스페인 단원들로 이뤄진 외국인 합창단이지만,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우리 가곡을 합창했다. 특히 '보리밭'과 '밀양아리랑'에 이어 '우리의 소원'을 노래하자, 임재식 합창단장이 눈물을 흘렸고, 이를 바라보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담판 원구성 합의 불발…논의 계속

野, 불발시 4일 의장 단독선출

여야는 3일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해 원내대표 간 담판 회동을 벌였으나 곧바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을 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한 상황에서 여야는 남은 시간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원구성 극적 합의냐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선출 강행이냐의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모처에서 비공개 협상을 하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을 최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런데 원 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계속해서 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후 박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 팝니다

선운지구, 해광샹그릴라, 32평
10층, 남향, 일조권, 조망 최상
즉시 입주 가능
급매 – 4억 2천만원 (전세, 3억 2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신안동, 대지, 176평
일반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보유
타용도 변경가능
급매 – 22억원

남구 덕남동, 임야, 200평, 지분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 접합
개발 호재 많음
매매 – 4천 4백만원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2평
8층, 남향, 천변쪽 코너, 전망 최상
현재, 보 1천만 월 55만 임차인 있음
매매 – 1억 1천 5백만원 (보증금 포함)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3605-5000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 급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오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